

#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양육행동과 흡연 및 음주와의 관련성

노윤호\*, 김은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lcohol Drinking, and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Yun Ho Roh\*, Eun Joo Kim\*\*†

\*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 Department of health management, Hyupsung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sis the health behaviors differences of adolescents depending on whether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Methods:** The data which is used in this study was extracted from the 2011 second korean adolescents' penal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in order to find how degree parents relationship factors are associated with adolescents' health behavior after adjusting sex, smoking(alcohol drinking) friends, and other significant variables. The data was processed by SAS 9.1. **Results:** Respondent's general characteristics such as smoking(alcohol drinking)friends, parents' job were positively relative to smoking and alcohol drinking experience. Also Parents's affection and experience of being abused from parent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moking(alcohol drinking) experience. **Conclusions:** Negative vertical attitude for children is important for the health risk behaviors of adolescents.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the health policy for the adolescents in korea, it is important to adapt new strategy to include the positive empowerment of adolescents' social networks except for smoking(alcohol drinking)friends and policy support to turn negative vertical attitude for children into positive attitude for children.

**Key words:** Parent, Adolescent, Health behavior, Parenting behavior

## I. 서론

성인기와 달리 청소년기에는 초기 건강행태를 형성하는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행태들은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어서(Kim, 2009), 이 시기에 흡연이나, 음주, 비만과 같은 건강위험행태를 사전에 막는 것이 중요하다.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17.2%, 여학생 6.5%로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23.7%, 여자 17.1%였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2012). 이차

림 선진국에 비해 높은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예방과 금연, 절주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에 해로움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가족과 학교 등의 생활환경과 사회적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 심리적 요인까지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Park, 2002). 다시 말해 청소년 흡연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보다는 개인과 주변인 간의 요소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연구되어 왔으며(Rezaeetalab et al, 2012), 더 나아가 Baheiraei, Hamzehgardeshi, Mohammadi, Nedjat, & Mohammadi (2013)의 연구에서는 가족 기능은 청소년 흡연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에 청소년들의 심리적 적응 관련 변수

Corresponding author : Eun Joo Kim

Hyupseong University, 72, Choerubaek-ro, Bongdam-eup, Hwasung-si Gyeonggi-do, Korea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최루백로 72 협성대학교 보건관리학과

Tel: 031-299-0751 Fax: 031-299-0980 E-mail: albert@uhs.ac.kr

▪ 투고일: 2013.04.25

▪ 수정일: 2013.06.21

▪ 게재확정일: 2013.06.26

들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국내에서도 최근 청소년 흡연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가족구조 등의 외형적 환경 요인들보다 가족 간 관계와 같은 기능적 환경 요인들에 더 주목을 하고 있으며(Lee, 2007), Kim & Park (1994)의 연구에서도 부모감독, 애정 및 대화 요인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o (2009)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음주행동과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im & Cho (2012)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착과 같은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흡연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해서도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청소년이 사회성을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이다. 또래집단 및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을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명확한 기준을 세워 가정 내와 밖을 감독함으로써 음주행위와 같이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Cho & Yoon, 2010). 반대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일정하고 명확한 규칙을 세워 지속적인 부모의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양육은 또래집단의 영향 및 사회적 영향에 취약한 자녀의 문제행동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Lee & Jung (200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도 있었다.

기존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같은 요인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Ko, 2009), 특정지역의 청소년이나 일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수행되어왔기 때문에(Kim, 2003; Ko, 2009), 청소년 전체집단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본 논문은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패널 조사를 활용하여, 기존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흡연시작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점(KCDC, 2012)을 고려하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Ko, 2009)와는 달리,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두었다. 이점에서 향후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건강행태관련 교육, 홍보, 상담에 있어서 기준 및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 음주행태의 차이를 보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 부모로부터의 피학대경험 여부에 따라 청소년의 흡연, 음주, 건강 활동참여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 II.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2011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조사된 청소년 흡연자 중 처음 흡연을 하는 학생의 흡연 시작 연령은 평균 12.8세로 조사되었다(KCDC, 2012). 다시 말해 중학교 2학년 시기가 청소년의 매일 흡연 시작에 있어 중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으며, 음주 또한 처음으로 1잔 이상 술을 마신 연령의 평균이 남녀 통틀어 평균 13세로 조사되었다(KCDC,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연구원이 실시한 2011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차년도에 응답한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와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자료분석이며, 단면연구이다(Figur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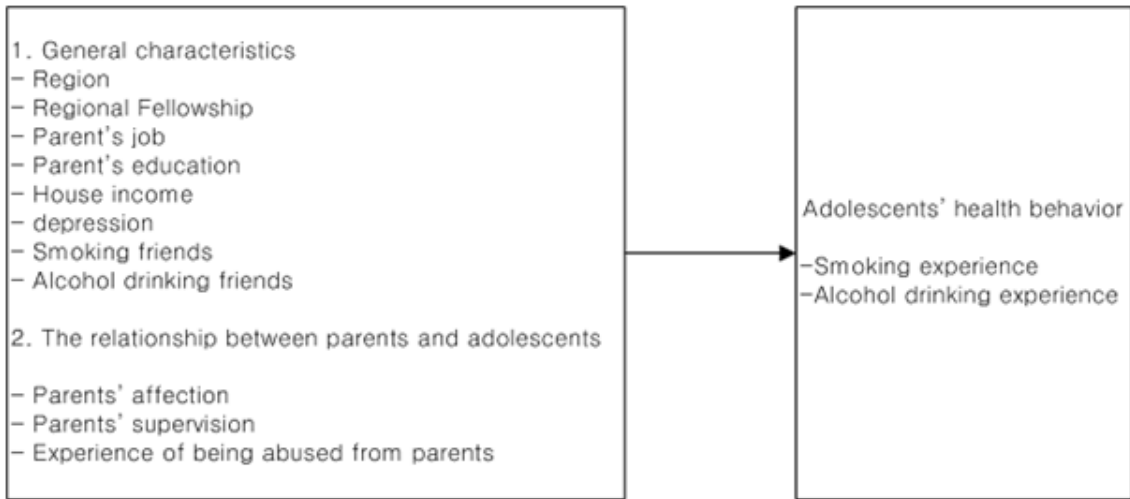
### 2. 연구대상

한국청소년패널조사는 최종표본으로 층화다단계표집방법을 통해 최종 2,351명의 청소년 및 보호자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2011년 2차년도 자료중 주요 변수항목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름이라고 응답한 학생들을 1차로 제외하였고,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연령이외의 연령(16세~19세)을 2차로 제외, 총 2,351명의 학생 중 1,330명을 제외하여 총 1,02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3. 변수설명

#### 1) 일반적 특징

연구대상자의 성별 이외에 일반적 특징으로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대한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로 구분하였으며, 주변 환경에 대한 변수는 Kim & Cho (2012)의 연구와 같이 “거주 지역”, “가족구조”, “지역특성”, “흡연(음주)친구 유무”, “우울감”, 이며, 사회경제적 변수로는 Kim, Kim, Yun, Khang, & Cho (2009) 및 Kim & Cho (2012)의 연구와 같이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 “가구소득”으로 정하였다.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of the study

Han, Choe, Lee, & Lee (2001) 연구의 경우 남학생의 서울 지역의 거주여부가 흡연/음주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의 경우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되어져 왔고, 서울 이외의 지역을 모두 일률적으로 “농촌”으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거주단위의 크기를 기준으로 “동”은 도시, “읍, 면”은 농촌으로 구분하여, 기존의 연구보다 세밀하게 지역구분을 하였다. 가족구조는 부모의 친부모여부가 자녀의 흡연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Park (2009)의 연구와 같이 ‘친부모 가정’과 ‘그 외 가정’으로 분류하였다. 지역특성으로는 동네사람들과의 친밀도 및 신뢰도, 동네 사람들의 비행행동 감독 및 제지, 도움, 기대로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5점을 기준으로 Kim & Cho (2012)의 연구와 같이 “낮음”, “보통”, “높음”으로 구분하였다. 흡연 및 음주친구의 유무는 친한 친구 중 지난 1년간 담배 피운 적(술을 마신 적)이 있는 친구수를 측정하였으며, 1명이라도 있으면 “있음”으로, 없으면 “없다”라고 분류하였다. 우울과 흡연의 유의한 관계를 보인 Park (2005)의 연구를 고려하여 우울감은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대 4점에서 신뢰도 ( $\alpha$ )는 0.8995이다. 그리고 각 문항의 값을 평균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변수로 사회경제적 지위 (Socioeconomic status [SES])인 “직업”, “교육수준”, “소득”을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Adler et al., 1994; Choi et al.,

2007; Kim, 2011; Kim et al., 2010; Kim, Khang, Yun, & Kim, 2004; Pappas, Queen, Hadden, & Fisher, 1993; Son, 2002).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 중 높은 학력을 따르도록 하였다(Goodman, 1999; Kang, 2005). Sohn (2000)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학력을 따로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나, Goodman (1999)의 연구에서는 부모 각각의 학력을 고려하지 않고, 부모 중 높은 학력을 측정하였다. 학력 구분은 “대학원이상”,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이하”로 구분하였다. 부모의 직업은 “육체적노동자”, “비육체적노동자”, “기타”로 분류하였는데(Kim & Cho 2012; Kim et al., 2009), 이는 노동의 강도여부에 따라 건강행태의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고려하였다(Kim, 2004; Kim, 2009).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1)관리자, (2)전문가, (3)사무종사자를 “비 육체노동자”로 분류하였고, (4)서비스종사자, (5)판매종사자, (6)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7)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8)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를 “육체적노동자”로 분류하였으며, 군인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Kim et al. (2009)연구에서는 학생, 주부, 무직을 “기타”로 분류하였으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 모두가 무직일 경우에만 “기타”로 분류하였고, 어느 한쪽이라도 직업이 있다면 해당 직업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보다 정확히 부모의 직업을 측정하였다. 가구소득은 Kang (2005)의 연구와 같이 지난 1년 동안의 가구소득을 측정하였으며,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이자소득, 재산 및 임대소득과 연금, 각종 보조금, 개인적으로 받은 돈을 합산하여,

상·하위 25%(3,500만원 미만과 6,000만원 이상)와 중위 50%(3,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으로 구분하였다.

## 2) 부모의 양육행동

건강행태와 관련 있는 독립변수로서 자녀가 느끼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im & Cho (2012) 및 Hwang (2010)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애정, 부모와 자녀의 상호이해 및 대화, 자녀의 건강과 청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모의 관심과 애착”(10문항)으로 구분하였으며,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부모님께서는 무조건 때리려고 하신다”,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많다”, “부모님께서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많다”를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으로 분류하였다. 각 문항의 값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 $\alpha$ )는 0.7033이다. Park (2009)의 연구와 같이 각각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관심과 애착”,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흡연 및 음주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종속변수로서 청소년의 건강행태를 알아보고자 흡연 및 음주경험유무, 건강 활동 참여여부를 지정하였다. 흡연은 년 간 및 하루 흡연량보다 지난 1년간 담배를 피웠는지 유무를 중점으로 두었는데, 그 이유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는 성인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담배를 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Hunter, Webber, & Berenson, 1980). 음주경험도 지난 1년간 음주를 했는지 여부를 다루었으며, 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였다.

## 4. 통계분석

빈도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자인 1,021명의 일반적 특징을 파악하였으며, 그러한 특징들 중 건강행태에 관련 있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단변량분석( $\chi^2$ -검정과 t-검정)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앞서 단변량 분석을 통해 나온 유의한 변수 등을 통계한 상태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횡단 가중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AS version 9.1를 사용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일반적인 특징

전체 총 1,021명 대상자 중에 남학생은 493명(48.3%), 여학생은 528명(51.7%)이며, 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남학생이 418명(49.0%), 여학생이 435명(51.0%)이었다. 부모가 육체적 노동자인 경우가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317명(50.4%), 312명(49.6%)이었다.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대학교인 청소년은 전체 대상자 중 569명(55.7%)으로 절반이 넘었다. 청소년 492명(48.2%)의 연 가구소득은 3,000만원에서 6,000만원사이이며, 지난 1년간 흡연경험이 있는 학생은 총 58명(5.7%)으로, 남학생이 42명(72.4%) 여학생이 16명(27.6%)이었다. 남학생 55명(61.3%), 여학생 72명(38.7%)이 흡연친구가 있었으며, 지난 1년간 음주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남학생 21명(43.3%), 여학생 26명(56.7%)이 음주경험이 있었다. 그리고 남학생 141명(44.7%), 여학생 89명(55.3%)이 음주친구가 있었다<Table 1>.

### 2. 부모의 양육행동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성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관심과 애착은 평균 3.06(표준편차 0.42)이며,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이 거의 동일함을 보이고 있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정도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이 1.69(표준편차 0.77)에 비해 남학생이 평균 1.82(표준편차 0.81), 여학생이 평균 1.56(표준편차 0.70)을 보임으로써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 대한 부모의 피학대 경험 정도가 높았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by gender

Variable	Category	Total		Gender				P
		N <sup>1)</sup> (Mean)	%(SD <sup>2)</sup> )	Boys		Girls		
				N(Mean)	%(SD)	N(Mean)	%(SD)	
	Total	1,021	100.0	493	48.3	528	51.7	
Region	Urban	853	83.6	418	49.0	435	51.0	.3012
	Rural	168	16.5	75	44.6	93	55.4	
Family type	Birth parents home	1,011	99.0	488	48.3	523	51.7	.9132
	Other homes	10	1.0	5	50.0	5	50.0	
Regional fellowship	High	405	39.7	153	37.8	252	62.2	<.0001
	Middle	151	14.8	73	48.3	78	51.7	
	Low	465	45.5	267	57.4	198	42.6	
Parents' job	Non-physical worker	387	37.9	174	45.0	213	55.0	.2261
	Physical worker	629	61.6	317	50.4	312	49.6	
	Other	5	0.5	2	40.0	3	60.0	
Parents' education	≥Graduate school	46	4.5	17	37.0	29	63.0	.1258
	College	569	55.7	269	47.3	300	52.7	
	High school	391	38.3	202	51.7	189	48.3	
	≤Middle school	15	1.5	5	33.3	10	66.7	
House income	High	298	29.2	136	45.6	162	54.4	.5476
	Middle	492	48.2	242	49.2	250	50.8	
	Low	231	22.6	115	49.8	116	50.2	
Smoking experience	No	963	94.3	451	46.8	512	53.2	.002
	Yes	58	5.7	42	72.4	16	27.6	
Smoking friend	No	894	87.6	438	44.5	456	55.5	<.0001
	Yes	127	12.4	55	61.3	72	38.7	
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	974	95.4	472	49.0	502	51.0	<.0001
	Yes	47	4.6	21	43.3	26	56.7	
Alcohol drinking friend	No	791	77.5	352	48.5	439	51.5	.2302
	Yes	230	22.5	141	44.7	89	55.3	
	Depression	(1.93)	(0.77)	(1.82)	(0.60)	(2.03)	(0.60)	<.0001
	Parent's affection	(3.06)	(0.42)	(3.05)	(0.43)	(3.06)	(0.42)	.4846
	Experience of being abused from parents	(1.69)	(0.77)	(1.82)	(0.81)	(1.56)	(0.70)	<.0001

Note: <sup>1)</sup>N=Number <sup>2)</sup>SD=Standard deviation

### 3. 일반적인 특징과 흡연, 음주와의 관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흡연율이 높았으며(P=.0002), 부모가 육체적 노동자인 학생이 비육체적인 노동자 학생에 비해 흡연율이 높았다(P=.0039). 그리고 흡연 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친구보다 흡연율이 높았으며(P<.0001), 음주친구가 없는 학생이 있는 학생보다 흡연율이 높았다(P<.0001).

마찬가지로 부모가 육체적 노동자인 학생이 비육체적인 노동자에 비해 음주율이 높았다(P<.0001). 흡연 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친구보다 음주율이 높았으며(P<.0001), 음주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음주율이 높았다(P<.0001). 마지막으로, 우울감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음주율이 높았다(P=.0011)<Table 2>.

<Table 2> Smoking experience, alcohol drinking experience and exercise b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Number)

Variable	Category	Smoking experience			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 (Mean/SD)	Yes (Mean/SD <sup>1)</sup> )	X <sup>2</sup> or t (p)	No (Mean/SD)	Yes (Mean/SD)	X <sup>2</sup> or t (p)
	Boy	451	42	14.3362 (0.0002)	472	21	0.2564 (.6126)
	Girl	512	16		502	26	
Region	Urban	806	47	0.2821 (0.5954)	816	37	0.8334 (.3613)
	Rural	157	11		158	10	
Regional fellowship	High	386	19	1.258 (0.5331)	388	17	2.9076 (.2337)
	Middle	141	10		140	11	
	Low	436	29		446	19	
Family type	Birth parents home	953	58	0.6082 (0.4355)	964	47	0.4873 (.4851)
	Other homes	10	0		10	0	
Parents' education	≥Graduate school	46	0	6.6227 (0.0849)	45	1	1.4727 (.6886)
	College	542	27		541	28	
	High school	361	30		373	18	
	≤Middle school	14	1		15	0	
Parents' job	Non-physical worker	365	22	11.0802 (0.0039)	369	18	35.2589 (<.0001)
	Physical worker	595	34		603	26	
	Etc <sup>2)</sup>	3	2		2	3	
House income	High	284	14	1.2614 (0.5322)	287	11	2.5738 (.2761)
	Middle	460	32		464	28	
	Low	219	12		223	8	
Smoking friend	No	780	11	120.6142 (<.0001)	772	19	38.7463 (<.0001)
	Yes	183	47		202	28	
Alcohol drinking friend	No	857	37	31.8953 (<.0001)	874	20	91.6336 (<.0001)
	Yes	106	21		100	27	
Depression		(1.92/0.61)	(2.07/0.61)	-1.77 (0.0776)	(1.92/0.60)	(2.2/0.63)	-3.27 (.0011)

Note : <sup>1)</sup>SD=Standard deviation. <sup>2)</sup>Etc=Et cetera

#### 4. 부모의 양육행동과 흡연, 음주와의 관계

청소년의 지난 1년 동안의 흡연여부와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

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흡연율이 높았다(P=.0024). 그러나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양육행동과 음주여부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Table 3> Smoking experience, alcohol drinking experience and exercise by the 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

Variable	Smoking experience			Alcohol drinking experience		
	No Mean/SD <sup>1)</sup>	Yes Mean/SD	t(P)	No Mean/SD	Yes Mean/SD	t(P)
Parent's affection	3.08/0.42	3.07/0.41	0.16 (0.8756)	3.08/0.42	3.10/0.42	-0.28 (.7792)
Experience of being abused from parents	1.67/0.76	1.98/0.82	-3.04 (0.0024)	1.68/0.76	1.89/0.83	-1.9 (.0576)

Note : <sup>1)</sup>SD=Standard deviation.

#### 5. 청소년의 흡연, 음주와 관련 있는 요인분석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성을 검사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값이 10이하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다음으로 단변량분석을 통해 흡연 및 음주경험유무와 유의한 관계를 가진 변수인 성별, 흡연 및 음주친구, 부모의 직업, 우울감,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에 대해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1은 먼저 성별, 흡연 및 음주친구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이며, 부모가 직업이 없는 학생이 비육체적 노동자 부모의 학생보다 흡연할 가능성이 19.27배 높았다(OR=19.27, 95% CI=17.46~21.27).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애착이 높을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1.14배 높았다(OR=1.14, 95% CI=1.09~1.19). 또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1.54배 더 흡연할 가능성이 높았다(OR=1.54, 95% CI=1.51~1.57). 부모가 직업이 없는 학생이 비육체적 노동자 부모의 학생보다 56.27배 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았다(OR=56.27, 95% CI=51.07~62.99).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애착이 높을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1.33배 높았다(OR=1.33, 95% CI=1.27~1.40). 또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1.22배 높았다(OR=1.22, 95% CI=1.19~1.24).

다음으로 Model 2는 성별, 흡연 및 음주친구 유무를 통제 한 결과이며, 흡연 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16.76배 더 흡연할 가능성이 높았다(OR=16.76, 95% CI=15.99~17.58). 부모가 직업이 없는 학생이 비육체적 노동자 부모의 학생보다 흡연할 가능성이 14.45배 높았다(OR=14.45, 95% CI=12.78~16.33). 그리고 부모의 관심과 애착이 높을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1.53배 높았다(OR=1.53, 95% CI=1.46~1.60). 마지막으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흡연할 가능성이 1.33배 높았다(OR=1.33, 95% CI=1.30~1.36).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음주할 가능성이 1.29배 높았으며(OR=1.29, 95% CI=1.24~1.35), 흡연 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음주할 가능성이 2.66배 높았다(OR=2.66, 95% CI=2.52~2.81). 음주 친구가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보다 음주할 가능성이 4.67배 높았다(OR=4.67, 95% CI=4.43~4.92). 부모가 직업이 없는 학생이 비육체적 인 노동자 부모의 학생보다 음주할 가능성이 29.40배 높았다(OR=29.40, 95% CI=26.30~32.86). 부모의 관심과 애착이 높을수록 음주할 가능성이 1.41배 높았다(OR=1.41, 95% CI=1.34~1.48). 마지막으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이 높을수록 음주할 가능성이 1.19배 높았다(OR=1.19, 95% CI=1.16~1.22)<Table 4>.

<Table 4> Multivariate logistic regression for the factors related to smoking experience and alcohol drinking experience

Variable	Model 1				Model 2			
	Smoking experience		Alcohol drinking experience		Smoking experience		Alcohol drinking experience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OR (95% CI)	P
<b>General characteristics</b>								
Gender <sup>1)</sup> (Girl)					0.47 (0.45~0.49)	<.0001	1.29 (1.24~1.35)	<.0001
Smoking friend <sup>2)</sup> (Yes)					16.76 (15.99~17.58)	<.0001	2.66 (2.52~2.81)	<.0001
Alcohol drinking friend <sup>2)</sup> (Yes)					0.92 (0.88~0.96)	<.0001	4.67 (4.43~4.92)	<.0001
Parents' job <sup>3)</sup> (Physical worker)	0.79 (0.77~0.82)	<.0001	0.85 (0.82~0.88)	<.0001	0.97 (0.94~1.01)	.1424	0.96 (0.92~1.00)	.0348
Parents' job	19.27 (17.46~21.27)	<.0001	56.72 (51.07~62.99)	<.0001	14.45 (12.78~16.33)	<.0001	29.40 (26.30~32.86)	<.0001
Depression	1.38 (1.34~1.42)	<.0001	2.28 (2.21~2.35)	<.0001	1.77 (1.71~1.82)	<.0001	2.15 (2.08~2.23)	<.0001
<b>Parenting behavior perceived by adolescents</b>								
Parent's affection	1.14 (1.09~1.19)	<.0001	1.33 (1.27~1.40)	<.0001	1.53 (1.46~1.60)	<.0001	1.41 (1.34~1.48)	<.0001
Experience of being abused from parents	1.54 (1.51~1.57)	<.0001	1.22 (1.19~1.24)	<.0001	1.33 (1.30~1.36)	<.0001	1.19 (1.16~1.22)	<.0001

Note: <sup>1)</sup>Reference=Boy <sup>2)</sup>Reference=No <sup>3)</sup>Reference=Non-physical worker

#### IV.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부모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흡연 및 음주경험 유무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연관성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새로운 흡연 및 음주시도는 중학교 시기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후 고등학교를 거쳐 성 인기에 접어드는 과정에서 흡연과 음주의 강도(흡연 및 음주량)와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 시기는 주위의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 노출과 생활행태변화에 대한 노력이 쉽지 않기 때문에 흡연 및 음주예방을 위한 적절한 시기는 흡연 및 음주 시작 후 보다는 시작 전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시

말해, 청소년 시기는 초기의 건강행태를 결정하는 시기인 만큼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태는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건강행태 형성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청소년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보았다. 또한 흡연과 음주경험 유무와 관련 있는 흡연 및 음주 친구 유무 그리고 성별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와 통제한 상태에서의 두 가지 결과를 보았다(Kim, 2006; Kim & Cho, 2012). 그 결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은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의 친밀감이 자녀의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으나(Kang & Suh, 1996; Kim, & Park, 1994), Kim & Cho (2012) 및 Hwang (2009)의 연구결과와는 반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와의 차이는 우선 연구시점의 차이로 볼 수 있다. Kim & Cho (2012) 및 Hwang (2009)의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2003년도 자료이므로, 본 연구시점과 많은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과거와 달리 그 변화시점의 속도가 빠르다고 감안한다면, 청소년의 경우 그 변화에 가장 민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연구결과와의 차이점은 과거에 느끼는 청소년의 감정과 현재 느끼는 청소년의 감정과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같은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흡연과 유의한 관계를 보임으로써, 부모와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시작하게 하는 동기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Karcher & Finn, 2005). 그리고 흡연친구의 유무가 청소년의 흡연경험과 매우 유의한 관련성을 보임으로써, 청소년 개인의 일반적인 특성의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한다.

호기심에 흡연을 시작하는 시기인 중학교 2학년 학생은 주위의 흡연친구로부터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더군다나 이 호기심이 친한 친구로부터 자극되어질 때, 직접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소년기의 교우관계는 성인들의 주변의 친한 사람과의 관계와 같이 공통된 흥미 거리를 공유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으나, 자기 통제력이 성인에 비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기의 교우관계는 건강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데 있어, 청소년 개인의 문제해결과 더불어, 가족의 기능이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많은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청소년 본인이 가족과 관계가 좋다고 여길수록 흡연시작이나 흡연수준 증가의 위험성이 감소하며(Lloyd-Richardson, Papandonatos, Kazura, Stanton, & Niaura, 2002), 가족 간 애착이 낮을수록 흡연행위를 한다는 선행연구결과(Kim & Park, 1994; Sohn, 2000)와도 본 연구결과는 불일치하였다. 이는 미국의 가정환경과 우리나라의 가정환경의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가정구성원 간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가부장적 문화가 이어져 온 나라의 가정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수평적 관계라기보다

는 수직적 관계에 가깝다고 하겠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로부터의 욕설 및 폭력과 같은 가정 폭력에 대한 경험을 받은 학생에게서 흡연경험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Lewis, Shanok, Pincus, & Glaser, 1979; Min, 1997). Lee, Hwang, Park, & Lee (2005)의 연구에서도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과거력(남학생의 경우), 가족기능과 현재 흡연율의 유의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Ryu & Yoon (2006)의 연구에서는 음주에 가장 영향력을 갖는 것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요인인 부모 감독이며, 부모의 감독이 낮다고 인식될 때 음주빈도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는 청소년 일반적인 특성들 중 흡연 및 음주친구의 유무, 부모의 직업, 우울감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음주경험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흡연 및 음주친구 유무를 동시에 고려한 Hwang (2009)의 연구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흡연 및 음주친구가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경험과 높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청소년과 그들의 친구와의 접촉빈도가 부모의 양육태도보다 영향력이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청소년의 흡연에 있어서는 주위의 흡연친구, 음주에 있어서는 흡연 및 음주친구 모두와 연관이 있다는 결과로서 음주경험에 있어서는 또래친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또한 부모가 직업이 없는 경우, 청소년의 초기 음주경험에 매우 유의한 관련을 보임으로써, 부모의 사회적인 소속감 여부가 청소년의 음주와 관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Hwang (2009)의 연구와 달리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관심과 애착은 음주경험과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부모의 관용적인 태도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과거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은 술에 대한 통제였다면, 근래의 부모는 자녀의 술에 대해 과거만큼 통제적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마찬가지로, Kang, Park, & Chun (2011)의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의 음주는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즉, 일정수준의 부모의 통제가 아닌 부모로부터의 욕설 및 폭력과 같은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음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이 없이, 폭력과 욕설의 형태로 관계가

형성될 경우 청소년은 부모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음주를 접한다고 볼 수 있다.

건강행태에 있어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태가 청소년 시기에 중요하다고 본다면, Lee (2012) 및 Kim & Cho (2012)의 연구와 같이 흡연만을 다루거나,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Hwang (2010)의 연구에서는 고려를 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는 부모의 관심과 애착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부모로부터의 피학대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와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경험을 모두 다루었다. 더불어,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 있어서도 Hwang (2010)의 연구는 “부모 애착”과 “부모 감독”과 같은 부모와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만을 다루었으며, Kim & Cho (2012)의 연구는 앞서 두 가지 요인 이외의 “피학대 경험”과 같은 부정적인 관계도 고려하여서, 본 연구는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행동을 모두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종합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관련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이 건강위험행태와 관련이 있다는 본 연구결과를 참고할 때, 금연을 시도하려는 청소년을 돌보는데 있어 부모의 올바른 양육행동 강화와 부모와 청소년의 관계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V. 결론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흡연,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태에 유의한 관계를 가졌다. 더 나아가 부모의 관심과 애정, 부모의 감독과 통제가 아닌 부모로부터의 피학대경험은 건강위험행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 선행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과 같은 경우 부모의 관심과 애정, 부모와의 대화 같은 부모와 자녀의 수평적 관계는 흡연과 음주와 같은 건강위험행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로부터의 피학대 경험과 같은 부모와 자녀의 수직 부정적인 관계를 사전에 예방한다면 흡연과 같은 건강위험행태를 예방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종합적으로 국가적 수준의 청소년 건강과 같은 보건정책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건강행태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해야 하며, 개인의 의지와 노력과 같은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어, 흡연 및 음주 친구와 같은 개인과 주변인간 요소, 특히 가족 간 관계와 같은 기능적 환경 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역사회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 하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건강행태와의 관련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횡단연구보다는 종단연구가 바람직하며, 이에 본 연구결과가 변수 간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더불어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와의 감독 및 통제와 같은 중요한 변수를 자료의 부재로 인해 고려하지 못했으며, 청소년의 건강행태에 영향을 주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보건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흡연량 및 음주량 그리고 신체활동의 강도와 같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이에 대한 더 심층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실제 부모로부터 조사된 양육태도가 아니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마다 지각하는 정도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심리적 요인은 일방향성 인과관계가 거의 없기에, 실험연구나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한 변수 간 선후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Adler N. E., Boyce, T., Chesney, M. A., Cohen, S., Folkman, S., Kahn, R. L., & Leonard-Syme, S. (1994). Socioeconomic status and health: The challenge of the gradient. *American Psychologist*, 49, 15-24.
- Baheiraei, A., Hamzehgardeshi, Z., Mohammadi, M. R., Nedjat, S., & Mohammadi, E. (2013). Personal and family factors affecting life time cigarette smoking among adolescents in Tehran (Iran): A community based study. *Oman Medical Journal*, 28(3), 184-190.
- Cho, H. C., & Yoon, M. S. (2010). A longitudinal study of reciprocal relation between parental monitoring and adolescent drinking. *Journal of Adolescence*, 17(12), 259-285.
- Choi, Y. J., Jeong, B. G., Cho, S. I., Jung, C. K., Jang, S. N., Kang, M. A., & Khang, Y. H. (2007). A Review on Socioeconomic Position Indicators in Health Inequality Research.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0(6), 475-486.

- Goodman, E. (1999). The role of socioeconomic status gradients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US adolescents' health. *The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89(10), 1522-1528.
- Han, S., Choe, M. K., Lee, M. S., & Lee, S. H. (2001). Risk-taking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Adolescence*, 24(4), 571-574.
- Hunter, S. M., Webber, L. S., & Berenson, G. S. (1980). Cigarette smoking and tobacco usage behavior in children with adolescents. *Preventive Medicine*, 9(6), 701-712.
- Hwang, S. H. (2009). A study of social bonding, self-control,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on the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of adolescent. *Studies on Korean Youth*, 20(1), 113-139.
- Hwang, S. H. (2010). Parental and peer factors influence on adolescent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 27(6), 81-103.
- Kang, J. H., Park, J. H., & Chun, J. S.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on alcohol use among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mental health and self esteem. *Journal of adolescents welfare*, 13(1), 121-140.
- Kang, Y. H. (2005).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health and health related behaviors: findings from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Journal of Preventive of Medicine and Public Health*, 38(4), 391-400.
- Karcher, M. J., & Finn, L. (2005). How connectedness contributes to experimental smoking among rural youth: developmental and ecological analyses.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6(1), 25-36.
- Kim, C. Y. (2004). Socio-economic status, health and health risk behavior,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6, 18-25.
- Kim, H. R. (2009). Implication of health behaviors in socioeconomic health inequalities and policy direc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3, 36-47.
- Kim, H. S. (2003). The influence of alcohol, drug use and aggressive impulsiveness on delinquent behavior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2(3), 349-357.
- Kim, H. R., Khang, Y. H., Yun, K. J., & Kim, C. S. (2004). Socioeconomic Health Inequalities and Counter Policies in Korea. Seoul, Korea: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J. E., & Cho, B. H. (2012). The impact of social relationships on adolescents' smoking behavior. *Studies on Korean Youth*, 23(1), 57-87.
- Kim, J. H. (2011). The Relationship among socioeconomic status, health behavior, and self-rated health status in employees: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8(1), 57-67.
- Kim, J. H., & Park, C. S. (1994). A research on juvenile drug abus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7, 11-228.
- Kim, M. K., Chung, W. J., Lim S. j., Yoon, S, J., Lee, J. K., Kim, E. K., & Ko, L. J. (2010). Socioeconomic inequity in self-rated health status and contribution of health behavioral factors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43(1), 50-61
- Kim, S. R., Kim, O. K., Yun, K. E., Khang, Y. H., & Cho, H. J. (2009). Socioeconomic factors associated with initiating and quitting cigarette smoking among korean men.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30(6), 415-425.
- Kim, Y. M.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and social control factors on adolescent drinking and smoking. *Studies on Korean Youth*, 13(6), 151-178.
- Ko, J. W. (2009). *The effect of family, school, peer-relationship on juvenile delinquency: focused on interview with the male at high school stud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Korea.
-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2). *Reports on the Korea Youth Risk Behavior Web-based Survey*, 2011. Seoul, Korea: Author.
- Lee, D. S., & Jung, M. S. (2007). The analysis of the effect factor on drinking behavior of teenagers: focused on high school students of gwangju & jeonnam district. *Social Welfare Policy*, 31(12), 125-148.
- Lee, H. K., Hwang, H. S., Park, H. K., & Lee, J. K. (2005). The association between adolescent smoking and family Function.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amily Medicine*, 26(3), 138-144.
- Lee, M. J. (2007).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hild communication patterns &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 & delinque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military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G. (2012).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behaviors and delinquent behaviors in adolesc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6(6), 157-185.
- Lewis, D. O., Shanok, S. S., Pincus, J. H., & Glaser, G. H. (1979). Violent juvenile delinquents: psychiatric, neurological, psychological and abuse facto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18(2), 307-319.
- Lloyd-Richardson, E. E., Papandonatos, G., Kazura, A., Stanton, C., & Niaura, R. (2002). Differentiating stages of smoking intensity among adolescents: stage-specific psychological and social influenc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4), 998-1009.
- Min, S. H. (1997).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upon the child's criminal and delinquent acts.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7, 13-219.
- Pappas, G., Queen, S., Hadden, W., & Fisher, G. (1993). The increasing disparity in mortality between socioeconom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1960 and 1986.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29(2), 103-109.

- Park, E. J. (2002). *The actual conditions on smoking of adolescences and related factors-centralized on stres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Park, N. H. (2005). Gender differences in the association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smoking, drin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2(4), 123-136.
- Park, S. H. (2009). Smoking behavior and predictors of smoking initiation in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9(3), 376-385.
- Rezaeetalab, F., Rezaeitalab, F., Soltaneefa, A., Ghaznavi, M., Bakhshandeh, T., & Saberi, S. (2012). The effect of smoking by family members and friends on the incidence of smok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Pneumologia*, 61(4), 234-236.
- Ryu, N. M., & Yoon, H. M. (2006). Study on peer pressure, parental supervision, Alcohol expectancy and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s of 2001 & 2006.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5(6), 891-903.
- Sohn, J. N. (2000). Predictors of cigarette smoking behavior among girl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6(2), 316-329.
- Son, M. A. (2002). The relationships of occupational class, educational level and deprivation with mortality in korea.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35(1), 76-82.